

현대미술가 제니 홀저의 개인전

January 13, 2021 | 조소현 에디터, 윤혜정 컨트리뷰팅 에디터

artist

생생한
공상

2016년 초여름에 진행된 인터뷰와 같은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. 이번에는 어떤 분위
기에서 인터뷰를 할 것인지? 뉴욕에서 지내며 격리 중이다. 손자의 장난감
아래도 있으니 나들이(웃음). 시간은 영국 방송을 들이겠다. 미국 뉴스부터 영국
드라마가 나오니까. 종종만 가족 소피에 앉아 있는데, 아무도 이 모습을 볼 수 없
다는 건도 다행이다. 아팠던 이 인터뷰는 항상 예상에서 미칠 생각이 다. 항상에서
일하는 것 별로 편하지 않다고들 하지만, 나는 참으로 신망심이 높다.

1980년대에 "PROTECT ME FROM WHAT I WANT"라는 문장을 탁월스케
어 진공관에 피문 된것은 통해 "PROTECT ME FROM WHAT I DON'T WANT"
라는 문장으로 된 상황을 이야기했다. 40년 전은 물론 우리가 처음 만난 2년 전에도
상황이 급변했지만, 동시에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. '내가 원하는 것과 '내가 원하
지 않는 것'의 간극에는 무엇이 있나? 유망하게, 건설적으로, 자립하게 행동하는
사람들, 그리고 허락으로는 생각 없이, 주우하게, 심지어 이 상황을 기초주의적
으로 착각하여 행동하는 사람들을 관찰했다. 보호하고 상상하는 능력에 대한 동
경이 있다. 상상기 돌린 순간조차 자신이 무엇을 희망하는지, 원하는 비를 행동으
로 옮기기가 전이 전이하게 생각해보는 게 싫다고. 내가 지시하는 제인할 수 없다.
지금의 나는 사람들이 더 이상 크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.

미국 대선 전 투표율을 둘러싸는 SNS 피드도 잘 보았다. 누구보다 현실과 가장 밀접
하게 관계 맺고 있는 당신의 생각 작업에, 이토록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반응이 어
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? 훌륭한 사람들과 협업해 대신 관련 프로젝트를 진
행했다. 공공 미술을 통해 어떤 바를 만들 수 있는지 이들을 강조하고 사람들이 투
표하도록 촉구했다. 이 캠페인을 통해 소셜 미디어에 대해 잘 알게 됐는데, 향후 내
작업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겠다. 미술을 떠나 얘기하지만, 최근의 다른 전시는
이미지를 보여줬던 듯한 부분이(도 화해) 사상의 양상에 따라 행동해야 할 제
언어에 대해 일깨워줬다. 시도가 분명하고 실재하는 양상에 가장 가까운 이들이 고
급이었다. 미국의 가치를 되새기고 싶었는데 참 내내.

이번 전시는 9년 만에 국제갤러리에서 열리는 개인전이다. 직접 오지 못하기에 공간
의 분위기를 더 상상할 것 같은데, 어떤가? 아티스트를 직면하니 오오? 나가지 못하
는 것이 너무 아쉽다. 서울 하면 그곳에서 나온 인상적인, 의미 있는 대화가 떠오
른다. 모든 한국인들은 언젠고 근본적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일 두루켜워져 있
는다. 그 상관과 행위를 증명한다. 나는 서울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만
나고... 탐사서 조울 증세하는 게 쉬운 일이다. 더 평등한 것에서 투신 능력을 새
고 보고 있는데, 초능력이라는 것이 늘 그렇게 받은 만큼 건이 아니라서, 유능한 남과 일
하는 것이 참이다.

전시 제목 'It's Crucial to Have an Active Fantasy Life'(생생한 공상을 한
대 사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 마왕이 용어도 줄을 정도로 현대 우리에게 현실의 문항
이 아닐까?) 이 문장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긍정적이고, 웃기고, 현실도피적
이고, 진지할 수 있어서 지독으로 골짜기다. 한 번도 상상적이나 승진된 바 있는 것을
구체화 전달하는 창의적 동행이 미술과 연관이거나, 엔터테인먼트의 사람들을 유하
는 것일 수도 있다. 우리는 더 나은 것을 만들거나 오지 않지 않. 더 나은 것이 무엇
인지를 궁극하며 끝까지 구하기, 대상을 지루하고 지독한 현실로부터의 아름다운
유가를 연상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.

온라인을 통해 작업한 것이고, 테크 아티스트 프로그래머인 이이열 앞에서 작
업한다는 게 새삼 낯설었고 하는데, 바로 그 작품을 이번이 보게 됐다. 어떤지 당
신이 '오래된 미래'로 진행한다는 느낌이 있다. 어떤 계기로 수혜자를 시도하게 됐지?



현대미술가 제니 홀저(Jenny Holzer)의 개인전은 이 기막힌 2020년의 송가(頌歌)다. 대리석에 새긴 문장
LED에서 춤추는 문장 기린본시 의 문장, SNS에 스쳐 지나가는 문장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간적으로 발화한
언어가 나의 머리에, 심장에 각인된다. 온전히 새겨넣고자 하는 아들을 풀이 않는 문장들이
희버극의 강계에 신 우리의 입상에서 공명한다. EDITOR SOHYUN CHO CONTRIBUTING EDITOR HEJJEONG YOON

